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9호 HYUNBULNEWS.COM 2025년 4월 30일(음력 4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영원한 사람

최승호

날마다 천진불이 나타납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하늘에
해 달 별이 모습을 나타내니
마하대법왕 부처님 오신 날에
마음은 빛으로 출렁이는 화엄바다입니다

날마다 중생불이 속삭입니다
숲길 들길 물길에서
무정 유정 진공생명체들이 속삭이니
마하대법왕 부처님 오신 날에
마음은 설법으로 향기로운 영산법회입니다

겁 밖의 봄날에
아이는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노인은 줄 없는 거문고를 뜯습니다
겁 밖의 소식에
모든 죄가 허공의 뼈처럼 무너지니
마하대법왕 부처님 오신 날에
마음은 죽지 않는 영원한 사람입니다

그림 · 박혜원@jabistudio1

최승호 시인은?
〈대설주의보〉와 〈눈사람 자살 사건〉 등으로 현대 한국 문학에 큰 획을 그었고, 〈말놀이 동시집〉 시리즈로 동시의 새 지평을 열었다. 불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 시인은 2024년 최초의 불교 동시집 〈부처님의 작은 선물〉을 출간했다.

불기 2569년 봉축특집호 커버면을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동심불심(童心佛心)'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A섹션 겉장을 따로 떼어내어 어린이에게 선물하거나 어린이 법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